

조선후기 變亂과 민중의식의 성장*

하 원 호**

- | | |
|--------------|----------------|
| 머리말 | 1. 變亂의 종교적 外皮 |
| I. 민중의 존재형태 | 2. 外侵에 대한 위기의식 |
| II. 變亂과 민중의식 | 맺음말 |

머리말

계급사회 이래 피지배계급의 저항은 어느 지역에서나 초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저항 형태와 의식세계는 그 사회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랐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있던 동아시아 삼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사회는 세계사적으로는 서양의 세계진출이 진행되던 시기였고 세계지본주의 형성과정에서 전 세계를 세계체제 속에 편입시키던 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사회는 서양세력과의 접촉이 적었고, 중국 일본과 조공 교린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일국사적 변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 사회 내부에서는 사회적 모순의 변화, 경제적 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 농민을 비롯한 피지배계급이 다양한 형태로 지배체제와 지배이데올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05-B00001).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로기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면서 사회적으로 격변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 저항의 형태와 저항의식 역시 역사가 진행되면서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물론 그 과정은 단선적 발전의 과정은 아니었다. 이 같은 농민을 비롯한 피지배계급, 곧 민중 저항의 역사적 경험 축적과 의식세계의 확산은 19세기 후반 개항으로 세계체제에 편입된 이후 제국주의의 침탈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외세 반봉건 운동의 뿌리이기도 했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사회적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민중운동과 민중의식이 고양되어 갔다.

조선후기 사회는 여전히 농업중심의 사회여서 피지배계급의 대다수는 농민이었지만, 토지겸병이나 부세중압으로 토지에서 축출되어 유민이 되어 流丐로, 도적으로, 도시 농촌 광산의 임노동자 등으로 존재하는 계층도 광범해 이들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대응형태와 의식세계를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 민중의 범주로 묶어 살펴보았다.¹⁾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변란에서 나타나는 민중의식의 성장을 살펴려고 한다.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와 비슷한 시기인 중국의 清代와

1) 1980년대 이후 민중사학이 등장하면서 규정된 민중개념은 근대세계-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민족적 모순과 계급 모순을 담지하는 농민, 소생산자, 소상인, 임노동자층, 진보적 지식인 등으로 형성된 계급연대체로 제반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는 변혁주체로 규정되었다. 한국역사학에서의 민중개념에 대해서는 정창렬, 1999 『한국에서 민중사학의 성립·전개과정』 『한국민중론의 현단계』 들베개 참조 이 글이 주로 다루고 있는 시기는 물론 근대이전의 사회이지만, 개항이후 근대사회의 민중의 원형이었다는 점에서 그 외연을 확장해 사용했다.
2) 조선후기 變亂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정석중, 1983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 李離和, 1884 「19세기 前期의 民亂研究」 『韓國學報』 35 ; 李離和, 1886 「19세기 民亂의 組織性과 連繫性前에 관한 연구」 『嶠南史學』 창간호 ; 고성훈, 1993 『朝鮮後期 變亂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고성훈, 1993 「숙종조 변란의 일단-수양산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남도영고회기념논총』 민족문화사 ; 한명기, 1993 「19세기후반 폐서 사건의 추이와 그 특성」 『國史館論叢』 43 ; 李相培, 「朝鮮後期 漢城府 掛書에 관한 연구」 『향토서울』 53 ; 裴惠淑, 1994 「朝鮮後期 社會抵抗集團과 社會變動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이상배, 1995 「純祖朝 掛書事件의 추이와 성격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49 ; 裴克燮, 2002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경인문화사.

일본의 도쿠가와 정권도 함께 비교해 보려 한다. 조선후기의 변란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사회의식은 개항 후 외세에 대응하는 민중의식의 뿌리이다. 따라서 개항으로 세계체제에 편입되기까지의 동아시아 사회 민중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대응형태와 그 의식세계를 비교하고 그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민중의식의 역사성을 동아시아사회 전체에서 자리 매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제국주의 침략기 삼국 민중의 대응양식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운동의 형태는 현실적 모순의 문제와 함께 역사적 경험의 축적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민중의 대응형태를 살폈다. 그리고 민중운동의 성격을 주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공통점을 추출하려 했다.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항쟁의 주된 종교적 외피가 미륵신앙이라는 점이나 항쟁 과정에서 만주족에 대한 저항형태를 보이는 중국과 양란으로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한국의 유사성은 일본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종교적 외피를 쓴 민중운동이 보여주는 지향과 민중운동에서 나타나는 외세에 대한 위기의식, 반외세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후기 민중의식의 역사성을 이해해 보려고 했다.

I. 민중의 존재형태

17세기 후반 이후 토지결병의 폐단이 심각해졌다. 궁가와 아문, 중앙의 권력가문, 지방수령, 토호층들의 침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숙종조 궁가의 절수는 심각해 “궁가에서 절수하는 폐단이 끝이 없어서, 후미진

산과 먼바다가 하나도 궁가의 籠絡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백성의 입술에 붙은 밥을 탈취하여 한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니, 많은 사람이 똑같이 말하기를, ‘宮莊을 폐지하지 않으면, 나라는 마침내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臺諫의 論啓와 각도의 狀聞과 御史의 복계가 이어지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왕이 오히려 절수를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절수는 계속되고 있었다.³⁾

절수가 주로 개간되지 않은 땅에 행해질 때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했지만 이 시기에는 개간 안 된 땅이 거의 남지 않아 궁가에서는 민전을 절수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로 인한 폐단과 농민의 반발도 심각했다.⁴⁾

이 시기 권세가나 토호들의 토지겸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권세가들과 지방관은 권력을 배경으로 토지매입에 적극 나서도 있었고, 향촌사회의 토호들 역시 토지매입과 녹탈을 통해 대규모의 토지를 겸병해 갔다. 그래서 박지원은 ‘농토를 가지고 자경하는 농민이 10에 1-2도 안 된다고 했고,⁵⁾ 이규경은 전 토지의 10의 8,9는 겸병지가라서 10결의 토지 중에 민전은 겨우 1결도 안된다고 했다.⁶⁾ 정약용도 19세기 초 호남지역의 사정을 100호 중 지주가는 5호, 자경농민이 25호, 소작농민이 70호라고 했다.⁷⁾ 18세기 초 중앙정부가 파악하는 무전농민의 숫자는 경상도가 5만, 충청도가 10만이 넘었다.⁸⁾

한편 부세수취의 비리는 중세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조선후기 들어 농업생산력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함께 대형화되고 수탈의 강도도 강해졌다. 부세의 수취방식이 18세기 들어 전총, 군총, 환총 등 총액

3)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5월 기사 ; 권37, 숙종 28년 9월 계유.
4) 한상권, 1992 『18세기 중후반의 농민항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2』 역사비평사, 71-72쪽 참조.
5) 『燕巖集』 課農小抄 限民名田議.
6) 『五洲衍文長箋散稿』 下.
7) 『丁茶山全書』 擬巖禁湖南諸邑佃夫輸租之俗劄子.
8) 『숙종실록』 권41, 숙종 31년 3월 무자 ; 권59, 숙종 43년 3월 기미.

제로 재편되어 군현단위로 수세 책임이 전가되자 수령은 부세운영에 적극 개입해 수탈을 자행했다. 부세수탈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수령이 형장을 남용하면서 민의 집단적 반발을 사 관아를 습격하거나 수령과 이서배를 습격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 ‘結黨作亂’ 행위는 19세기에 이르면 본격적 민란으로 폭발했다. 19세기에 종래의 삼정의 운영방식을 도결로 바꾸면서 도결의 폐단이 극심했고, 1862년의 농민항쟁은 주된 원인은 이 도결 때문이었다.⁹⁾

또 환곡은 이미 진대기능을 상실하고 부세의 형태로 바뀌고 있었다. 환곡도 총액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환곡 분급이 강제화되었다. 곡물이 상품화되면서 수령과 이서배들이 환곡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바람에 환곡은 본래의 진대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더구나 수령, 이서배들이 환곡을 포섭하고 그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군정은 군역 대신에 이미 황구침정, 백골징포, 인징, 족징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침징까지 되면서 군역부담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¹⁰⁾

토지겸병이나 부세수탈의 중압에 토지에서 축출된 농민들은 유민이 되어 유망하면서 구걸하는 流丐가 되거나, 도적으로 조직화되기도 했다. 토지에서 축출된 계층은 도시나 광산으로 들어가 임노동자가 되었다.¹¹⁾ 물론 유민의 발생에는 계속된 흉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들어서는 토지겸병이나 부세수탈의 중압이라는 사회적 요소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 숫자도 대량으로 발생했다. 1717년 충청도에서 땅이 없어 굶주리는

9) 안병욱, 1989 「19세기 부세의 도결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국사관논총』 7; 정선남, 1990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 『한국사론』 22.

10) 장동표, 1999 『조선후기 지방재정사연구』 국학자료원.

11) 유이민에 대한 글로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金武鎭, 1993 「조선사회의 遺棄兒 收養에 관하여」 『계명사학』 4; 邊柱承, 1992 「19세기 流民의 실태와 그 성격」 『史叢』 40·41합집; 1995 「18세기 유민의 실태와 그 성격」 『전주사학』 3.

백성이 103,000명이 된다는 것은 앞서 본 토지겸병의 결과였다.¹²⁾
이 같은 유민의 존재형태는 전통적 문학작품에 잘 나타난다.

늘근 늪은 거스되고 / 절근 늪은 늪이 되고 / 그도 저도 못된 늪은 / 현 두더기
달머지고 / 계집 조식 압세우고 / 뉴리스방 개걸타가 / 늘근이와 어린 거슨 / 구
학송당 절노 되고 / 당정 덜은 스라나셔 / 목숨도모 흐라호고 / 당 저그면 서절
구투 / 당 못노면 명화적의 / 저 일들이 뉘타시랴 / 제 췌도 아니로다

18세기의 국문가사인 「향산별곡」의 일부인 여기에서는 유민은 居士, 사방으로 구걸하는 流丐, 溝壑의 송장, 鼠竊狗偷하는 자, 明火賊으로 묘사 된다. 떠돌이 사당패인 거사와 구걸하는 유개로, 죽어가는 시체로, 줌도둑질을 하다가 무리를 지어 작당을 하면 명화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언문 노래는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봉건 정부도 항상 견제의 대상이었다. 1672년에는 조정을 비방하는 언문 노래가 도성에서 비롯되어 각지로 번져나가면서 조정 내에서도 이를 단속하려고 했다. 사간원의 계에 의하면,

조정 기강이 날로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돌아보고 거리끼는 바가 없게 되어, 길거리에서 말하고 향간에서 논평하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언문으로 노래를 짓기까지 하였으니, 마음 씀이 지극히 간교합니다. 처음에는 도성안의 樵夫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관서의 기녀들의 노래가 되어 먼 데나 가까운 데나 전파되기에 이르렀으니 듣기에 놀랍고도 의혹이 생깁니다. 온 조정의 搢紳들이 기롱을 받게 되고, 일시에 우매한 민중들이 멋대로 비웃는 짓을 하여 조정을 경멸하고 이 시대를 모욕함이 심하니, 자세히 조사해서 세밀하게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듣게 된 사람인 沈杓을 攸司로 하여금 엄중하게 심문하여 적발해 내서 법률에 따라 죄주시기 바랍니다.¹³⁾

12) 『숙종실록』 권59, 숙종 43년 3월 계해.

라고 했다. 언문노래의 내용은 양반지배층을 비판하고 야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 전파력은 순식간에 전국에 번져갈 정도로 민중의 의식세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문 노래는 민중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어 민란에도 민중을 선동하는 노래로 사용되기도 했다. 1840년대 지어졌다는 「거창가」는 수령과 이서배에 대한 격렬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중 “학정도 흐거니와 남살인명 어인일고”라는 구절은 부세수탈을 위해 형장을 남용하던 사정을 전해준다.¹⁴⁾ 1862년 진주민란에 참여한 유계춘이 봉기 군중을 이끌고 가면서 언문가사를 지어 선동했다는 것도 그 예이다.¹⁵⁾

몰락농민으로 토지에서 축출된 경우 임노동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봉건정부의 진휼 논의 속에서 자주 거론되는 無土飢民이나 유랑민의 광범위한 출현을 통해, 몰락농민의 노동력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운데 고용노동자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한 예로 1793년(정조 17년) 황해도 연안, 배천, 해주, 안악 등에 대흉이 들어 流亡한 戶가 591호에 이르렀는데¹⁶⁾ 7월 이래 民戶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자가 수천에 달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¹⁷⁾, 거의 60% 정도의 유망호가 돌아오지 않았다. 나머지 40% 즉 약 400여 호 정도만이 귀환하였다. 즉 흥년시 토지를 떠난 유민과 임용위업자 등의 계층이 일각에 형성되고 있었고, 한편에는 대다수 농민들이 다시 토지와 결합되면서 소작농, 고용농민 또는 임노동층으로 존재하였다. 유민층이 스스로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노동력시장이 곳곳에 형성되게 되었다.

대개의 경우 상경하는 유민이나 장시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유민층은

13) 『속중실록』 권24, 숙종 18년 11월 신유.
 14) 진경환, 2000 『古典의 打作』 391-392쪽 참조.
 15) 김진봉, 1970 「진주민란에 대하여」 『백산학보』 8.
 16) 『正祖實錄』 권38, 正祖 17년 10월 己亥.
 17) 『正祖實錄』 권38, 正祖 17년 9월 己未.

‘賃傭爲業者’로 되기 이전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多結作黨’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외방유민이 ‘서울에 가면 살길이 있을지 모른다’¹⁸⁾라고 생각하여 집결하는 都城, 城下란 대체로 농촌 과잉인구가 흡수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도시의 한편에는 품삯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脫農化된 도시빈민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도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고용노동자가 되기도 했다. 특히 상업의 발달로 대규모 노동력의 수요가 있던 서울의 경우 인구 증가의 요소가 되었다. 당시의 문학작품에도 서울로 향하던 유민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도 있다.¹⁹⁾ 물론 서울의 지역의 공식적 인구통계는 1669년(현종 10년) 이래 200여 년간 거의 변함없이 20만 명 전후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인구통계는 실제의 주거인민을 파악하기보다 각종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어서 누락인구가 많았다. 서울 근교지역에 흉작이 들 경우에는 상당수의 유민이 서울로 유입되어 도시 빈민이 되어 통계상에 파악된 인구보다 많았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이 서울 외곽의 경강 주변의 상업지대에서 도시빈민이 되어 임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의 곡물을 조달하던 경강상인들은 각지의 미곡을 서울로 운송하고 이익을 남기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서울에 비해 지방의 미가가 높을 때는 경강의 미곡을 이송하여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또, 세곡운송 등으로 축적한 대규모의 자본력으로 무곡된 미곡만이 아니라 貢米나 役價米 등 서울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곡물을 장악하고, 선상·시진상인, 심지어

18) 『備邊司謄錄』 제53책 肅宗 29년 3월 2일 副提學 金鎭圭啓.

19) 『秋齋集』 「北行百節」 其十五, ‘鄒家嶺’.

발을 구르며 아이와 늙은이 부르는데	頓足呼童叟
저마다 “서울로 가는 중이지요”	皆言上漢京
봄바람은 무심히도 부황 든 얼굴을 스치니	春風吹菜色
어느 날일런지 서울 땅을 날이	何日入京城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미곡을 판매하는 영세상인인 坐市米商들까지 통제함으로써 곡물 가격을 조직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 1833년(순조 33)에는 이들의 매점을 통한 가격 조작으로 미가가 급격히 등귀하자 빈민들이 대규모의 '쌀폭동'을 일으켜 이들의 都賈상업행위에 저항하기도 했다.²⁰⁾

향촌사회에 광범하게 존재하던 유민층은 임노동을 팔 고용처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作黨하여 몰려다녔다. 그들은 마을주변의 여기저기에 자주 출몰하던 빈농층으로서,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떼거리로 표현되듯이 이곳저곳 편력하던 농민층이었다. 이들은 주로 장시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장시란 상업도시의 근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노동력 시장으로도 기능하였던 것이다. 원래 조선시대 장시에 대한 공식적 기록은 성종대 초에 처음 나타난다. 1470년(성종 원년)에 흥년이 들어 전라도 인민이 서로 모여 시포市鋪를 열고, 場門이라 칭했다고 한다.²¹⁾ 이 장문은 정부측에서 만든 교역소가 아니라 인민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품교역의 장소였고, 개시되는 장소는 주로 읍에 소재한 큰 길가였다.²²⁾ 그러나 장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장시가 출현한 초기부터 정부는 “교역은 근본(농업)을 버리고 말업(상업)을 쫓는 것이라 물가가 앙등해 이로온 것은 적고 해악이 많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²³⁾ 전통적 抑商政策의 입장에서 장시의 증설을 반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장시개설에 대해 중앙정부는 금압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흥황시 농민을 진휼해야 하는 지방수령층에서는 진휼 정책의 하나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²⁴⁾ 상품유통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사회적 생산력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어서

20) 姜萬吉, 1973,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學校出版部, 84-85쪽 ; 하원호, 1995, 『開港期 서울의 穀物流通構造』 『郷土서울』 55.

21) 『성종실록』 권27, 성종 4년 2월 임신.

22) 『성종실록』 권20, 성종 3년 7월 임술.

23) 『성종실록』 권20, 성종 3년 7월 임술.

24)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6월 갑자.

국가의 금압책만으로는 상품유통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장시개설에 대한 금압책 역시 시기가 지날수록 약화되어 갔고 장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⁵⁾ 이 같은 진흥 기능에서 출발한 장시인 만큼 조선후기 들어와 토지에서 밀려난 무전농민이 장시에 흡수되는 것은 당연했다. 정조대 부수찬 홍의계의 계에서도 “근래 무뢰한 무리들이 장시에 모여든다”²⁶⁾고 했던 것이다.

유민은 화전을 일궈 생계를 잇기도 했다. 화전민으로 정착하면 田役나 賦役과 같은 부세賦稅의 부담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開墾 여부에 따라 몇 년 간의 생활은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17세기 후반 金昌協(1651-1708)의 「山民」이란 시에는 수령이나 이서 배의 침학에서 건디다 못해 화전으로 생계를 잇는 화전민에게 묻는 대화가 나온다.

애처롭다. “이곳이 뭐가 좋길래	哀此獨何好
후미진 이 산골에 사는가요.”	嶠嶠山谷間
“저 평야가 좋긴 하지만	樂哉彼平土
가서 살고과도 고을 관리놈 두렵다오”	欲往畏官 ²⁷⁾

그래서 유민들은 우선 법망이 미치지 않은 후미진 산을 찾아 화전민으로 전화하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수취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화전민에 대해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²⁸⁾

유민중의 일부는 광산으로 들어가 광업노동자가 되었다.²⁹⁾ 물론 유민

25) 李景植, 1987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57 참조.
 26) 『備邊司謄錄』 제170책, 正祖 11년 1월 19일 副修撰 洪義浩啓.
 27) 『農巖集』 권1, 「山民」.
 28) 李景植, 1989 「朝鮮後期の 火田農業과 收稅問題」 『韓國文化』 10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9) 성영주와 혈주달은 / 동서남북 외여들어 / 편수,별패,연군들은 / 별떼같이 날아 들어 / 백 호 등에 혈을 파고 / 개압같이 출입할제 / …… / 고진동이 좋다하고 / 팔도 인민

만이 아니라 무전농으로 농업노동력을 제공하던 농촌임노동자도 광산으로 끌려들고 있었다. 그래서 丁若鏞도 ‘지금의 山郡 농가는 1일에 100전을 주더라도 雇人을 구할 수 없으니 모두 金店때문이다’라고 할 정도였다.³⁰⁾ 고용노동자들이 금점의 성쇠에 따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산군농가에 미치는 폐단이 크다는 것이다. 금은점에 끌려드는 농민들 중에는 무전농민뿐 아니라 농업 자생하는 농민들조차 토지를 버리고 무리지어 끌려들었다.³¹⁾

광업노동자는 유개나 명화적과는 달리 생산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유민 대책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18세기 禹禎圭가 “정부에서 은산지에 설점을 허가하면 부상대고들이 각기 자금을 내어 용인을 모집할 것이며,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백성들은 점민이 되고자 그곳으로 모여들고...”³²⁾라고 하면서 정부가 設店收稅를 통해 광산을 개발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들 상당수가 이곳으로 끌려들게 됨으로 광산개발은 유민문제를 해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광산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임금은 현지의 관행에 따르고 있었는데 매일 幾錢씩 지급되었던 듯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흠어질 때 한 구덩이를 지정하여 3일간 私採하여 수입으로 삼도록 하기도 했다.³³⁾ 굴을 파는 굴토군이 1일 3전씩 지급받았다는 것을 보면 3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다고³⁴⁾ 이들은 토지경병과 부세수취 등 이 시기 경제적 모순에 강요되어 광업노동자로 들어 온 만큼 사회적 변혁에 대한 열망도

모여들어 / 생애할 수 전혀 없어 / 도적 심사 절로난다 / 삼조 벽곡 한은모야 / 신선되기 아니로다 / 고향생각 절로 나니 / 무동전을 어이할꼬. 국문가사인 『銅店別曲』에는 광산에 전국적으로 유민이 모여들고 있던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김성수, 1992 『19세기 광산노동가사 銅店別曲』,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30) 『與猶堂全書』 권9, 應旨論農政疏.

31) 『隨錄』(奎章閣, 古5120-163-1) 7월 24일 營關.

32) 禹禎圭, 『經濟野言』, 『銀店勿禁之議』.

33) 『牧民心書』 工典六條 山林.

34) 柳承宙, 1982 『朝鮮後期 金銀銅鑛業의 物主制 研究』, 『韓國史研究』 36.

커서 1811년의 홍경래란에서는 봉기군의 병력이 되어 참여하기도 했다.³⁵⁾

이 시기 임노동층과 임노동을 고용한 층간에 분쟁도 자주 일어났다. 개인적 차원의 소극적이면서 합법적인 저항방식은 임금인 고가를 둘러싼 爭雇를 통해서 나타났다. 정약용은 ‘爭其雇價하는 쟁고 사건에 대해서, 雇主에 죄가 있느냐 雇奴에 죄가 있느냐를 따져서 고가를 가급해주고 다시는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³⁶⁾ 그리고 고주와 고공간의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마을의 공론에 따른 평결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가 지급에 따른 쟁고는 고용-피고용자간의 계약관계를 좀더 대등한 관계로 고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느덧 쟁고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고가를 더 받기 위해 쟁고하면서 고용처를 선택하고 있던 것은 고용관계 발전의 단적인 표현이었다. 더구나 구두계약이 대부분이었던 당시에 쟁고 문제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³⁷⁾

유민의 일부는 도둑이 되기도 했다. 정부 내에서도 도둑을 집단 수용해 섬으로 보내지는 시도도 있었지만 유민의 대규모 발생이 도둑을 만든다는 점에서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³⁸⁾ 따라서 토지점병과 부세중압으로 토지에서 밀려난 유민이 대량으로 존재했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도적은 광범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향산별곡」에서 보듯이 유민의 일부는 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사는 물론 연회를 주목적으로 하는 떠돌이 사당패였다. 정조대 정언 이우진은 거사를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면서 이름은 호적에 빠져 있고 신역을 지지 않는 유민 중 가장 수상한 자”라고 정의했고,³⁹⁾ “居士黨이 적으면 평화적이 되고 크

35) 정석중, 1972 『洪景來亂의 性格』, 『韓國史研究』 7, 한국사연구회; 鶴園裕, 1981 『平安道 農民戰爭의 參加層』, 『傳統時代의 民衆運動』 상, 풀빛 참조.

36) 『牧民心書』 赴任六條 莅事.

37) 崔潤晤, 1992 『18·19세기 농업고용노동의 전개와 발달』, 『韓國史研究』 77.

38) 『숙종실록』 권31, 숙종 23년 2월 신해; 권25상, 숙종 24년 7월 을해.

39)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2월 병신.

면 역모를 도모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⁴⁰⁾ 거사가 전국을 유랑하던 무리인 만큼 봉건정부의 입장에서는 도적의 혐의가 가장 짙은 집단이 이 거사들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평화적이 일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⁴¹⁾ 숙종조에는 이 도적활동이 극심해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都城內 無賴輩로 불린 도시 빈민들 중에는 도적활동에 가담해 대낮에 城市를 약탈해 해가 저물면 교외 수십 리부터는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⁴²⁾ 평화적은 후기로 갈수록 조직화되어 말을 타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창검은 물론 총포류까지 소지한 무장력을 갖춘 집단이었다.⁴³⁾ 이들의 저항형태는 부호가를 공격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조세를 약탈하거나 관군을 공격하기도 해 봉건정부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선후기 경제적 모순 때문에 토지에서 밀려난 층이었고 따라서 사회적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했지만, 생산과정에서 축출된 계층이어서 사회적 변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었고 단순한 活貧활동 외에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층이 아니었다.

이처럼 각종 사회 경제적 모순에 대한 대응형태는 민중 내부에서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이 시기가 농업사회인 만큼 사회적 변혁 역시 농민층을 중심으로 대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토지집적과 부세체제의 경제적 모순 속에서 정소, 결당작난하던 농민들의 대응은 19세기에 이르면 적극적 농민투쟁의 형태였던 민란으로까지 발전해 갔고 사회적 정치적 의식도 함께 상승되어 갔다.⁴⁴⁾

40)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2월 을유.

41) 『숙종실록』 권37, 숙종 28년 8월 갑신 ; 권38상, 숙종 29년 3월 기미 ; 권38하, 숙종 29년 11월 임술.

42) 『숙종실록』 권38상, 숙종 29년 3월 경술 ; 권38하, 숙종 29년 11월 무오.

43)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11월 갑신 ; 권77, 영조 28년 8월 신묘.

44) 한상권, 1991 『1811년 황해도 곡산지방의 농민항쟁』 『역사와 현실』 5. 홍경래란 직전에 일어난 곡산농민항쟁에 대해 한상권은 “농민들이 그때까지 유리, 도망과 같은 소극적인 저항

농민층은 봉건적 모순에 대응해 조직적 역량을 고양해 갔다. 노동공동체로서의 두레, 생활공동체로서의 村契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세제도의 변화에 따른 공동납을 위한 조직과 그것의 확대된 형태로서의 鄉會 조직들이 결성되어 부세제도에 대한 향촌 내부의 결속이 가능해지고 있었다. 향촌내의 계 조직을 이용한 저항은 1826년 경주에서 契民輩가 장기현감을 공격했다는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⁴⁵⁾ 184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는 기존의 향회가 향촌의 사족들을 중심으로 일반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차원의 조직으로부터 부세문제를 둘러싸고 大, 小民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나아가 각종 농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조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었다. 향회가 농민을 조직하고 각종 부세의 중압에 저항하는 항쟁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⁶⁾ 그러나 1862년의 전국적인 농민항쟁 이전의 시기에는 향회를 매개로 한 농민들의 투쟁도 아직은 呈訴 등을 관아에 제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관에게 민원을 제출하던 단계를 지나 후기로 가면 집단적으로 중앙정부에 호소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농민층의 태도는 농민들이 올리는 民狀의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집권층의 태도는 농민들의 저항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민들의 요구가 집권층의 兩非論에 입각한 명분론적인 대응 때문에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들의 다음 행동은 1862년 단계의 전면적 봉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⁷⁾ 1862년의 농민항쟁은 향촌사회의 구성원의 전반적 이해관계가 결합되면서 일어났다. 일반농민만이 아니라 토호, 요호부민까지 여기에 가담 주도함으로써

을 탈피하고 변혁주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하였음"을 강조한다.

45) 『日省錄』 丙戌(1826) 5월 2일.

46) 안병욱, 앞의 글 참조.

47) 한명기, 1992 『19세기 전반 반봉건항쟁의 성격과 그 유형』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참조.

계급연합형태가 가능했고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 내부에는 계급적 이해에 따라 행위양식은 다르기는 했으나 농민의 전반적 요구를 폭발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농민의 대응형태와는 달랐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봉건체제의 거부를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주로 지방관과 이서배 등의 탐학에 저항하는 형태로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체제변혁을 요구할 수준은 아니었다.⁴⁸⁾ 봉건적 체제에 대한 전면적 도전과 체제변혁을 위한 봉기는 역시 1894년의 농민전쟁에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II. 變亂과 민중의식

1. 變亂의 종교적 外皮

양반 이후 사회체제가 흔들리면서 조선사회는 근원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봉당정치의 정국 운영이 정치집단 내부의 갈등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물론 영정조의 탕평기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정치 내부의 대립 갈등 국면이 내재함으로써 19세기에는 세도정치로 이어졌다. 토지집적으로 인한 소유분화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 변동은 신분제의 동요로 이어졌다. 토지겸병과 부세수탈의 중압에 대한 민중의 대응은 다양했고 후기로 갈수록 그 의식세계 역시 확산되어갔다.

48) 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1862년 농민항쟁』 동녘.

더구나 정감록, 미륵신앙 등 민간사상이 민중에게 널리 유포되면서 체제 저항의 사상적 틀로 기능했다. 그러나 민중의 의식이 단선적 발전의 과정만 거친 것은 아니었고 상승과 하강이 교차되면서 역사적 경험의 축적 속에서 변혁에 대한 의식세계 역시 발전해 갔다.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동을 잘 보여주는 것은 강고했던 중세적 신분제였다. 양반이후 납속이나 공명첩 등 여러 방법으로 신분제의 변화가 있었지만 신분제의 동요현상 중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노비층의 동요였다. 노비층은 주로 도망을 감으로써 신분적 굴레를 벗어나려 했고, 단순히 도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인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⁴⁹⁾ 주인을 살해하는 살주계나 검계 역시 이 같은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지배층에 대응형태가 양반지배층에 대한 살육과 겁탈, 재물약탈로 나타날 정도로 극단적 의식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도망노비에 대해 국가는 강력한 추쇄정책을 시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더구나 영조연간에 종모법이 확정, 시행됨으로써 노비의 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⁵¹⁾ 노비제의 동요는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인구의 증가로 토지에 대한 노동력의 가치가 저하된 때문이기도 했다.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동원을 용이하게 만들어 노동력의 유지에 비용이 드는 노비제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변화와 불안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민중의 정서를 동요시켰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와언과 요언이다.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을 나타내거나 조정비방, 역모로 인한 군사동원 등 체제 비판적 와언에 비해서妖言은 상대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의술이나 술법을 행한다거나 생물을 자처하는 사건들이 그러한 예이다. 와언은 유언비어여서 퍼뜨린 주

49)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8월 신해 ;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7월 정미.
50) 정석중, 1983 앞의 책, 23쪽 참조.
51) 平木實, 1982 『조선후기노비제연구』 지식산업사.

체가 분명한 경우가 드물지만 요언은 대체로 주동인물이 명확했다.⁵²⁾

1718년(숙종 44년) 무당을 업으로 삼는 금성의 상민 신의선과 회양의 윤봉립이 각각 聖人和 公子를 자처하면서 민심을 혼란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부적과 정화수로 사람의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퍼뜨려 사람을 모았고, “올해에는 전염병이 크게 퍼져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를 따를 황성에 가서 복도로 옮겨가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 것이다”는 요언을 퍼뜨려 농사짓는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⁵³⁾

숙종조의 미륵신앙 사건도 이 같은 요언사건 중 ‘생불출현의 일종이었지만, 보다 조직화되었다는 면에서 사건의 영향을 매우 컸던 것이다.⁵⁴⁾ 미륵신앙사건은 승려 여환이 양주지방을 무대로 地師, 무당 등과 함께 常漢 20여 명을 포섭해 일기의 변화를 틈타 서울공략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사건이었다.⁵⁵⁾ 이 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봉건정부의 타도를 기도했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도 충격이 컸지만 그 대안이 단순히 종교적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713년 8월 양주의 이운이 이웃사람 백상복 형제를 무함해 올린 변서에서 백상복 등이 “왕후 장상이 어찌 씨가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인조 효종 및 숙종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한 사건은 비록 무고로 판정이 났지만 당시의 민중이 가지고 있던 의식세계의 일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⁵⁶⁾

그런데 요언 사건 중에는 숙종조부터 『정감록』이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1671년 무당인 해주 사람 車忠傑과 재령 사람 趙以達, 愛珍 등이

52) 고성훈, 1993 앞의 박사학위논문.

53) 『숙종실록』 권62, 숙종 44년 윤8월 병신 ; 권64, 숙종 45년 11월 신묘.

54) 정석중, 앞의 책 참조.

55) 『숙종실록』 권19, 숙종 14년 8월 신축.

56) 『숙종실록』 권52, 숙종 38년 8월 무오.

“蕩陽이 다하고 奠畝이 일어설 것이다”, “수양산 의상암에 奠礮臺이라는 생 불이 거처하는데 장차 국가를 얻을 것이다”라며 정감록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요언을 퍼뜨리면서 체제를 부정한 사건이 발생했다.⁵⁷⁾ 奠畝은 鄭을 의미하고 정필석은 그 구체적 대상인물이다.

『정감록』은 고려시대에 단초가 보이고 있었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양란 이후 조선후기에 들어서 등장한 것으로 본다. 『정감록』의 ‘李亡鄭興’은 일종의 역성혁명을 나타내고 체제 부정의 논리이다. 민중에 광범하게 퍼져 있던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과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에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었고, 조선후기의 변란에는 거의 빠짐없이 『정감록』이 이용되고 있었고 홍경래의 난에서도 이를 내세우고 있었다. 변란주모자들이 『정감록』을 민중의 동원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민중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의식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정감록』만이 아니라 『南師古秘記』 『道說秘記』 등 각종 비기류들도 이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이 같은 변란의 전개는 중국과도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다. 이편 전쟁 이전 중국사회에서 청대에 가장 큰 민중운동은 백련교도의 난이었다. 1796년에서 시작된 백련교란은 1805년까지 지속되었다. 백련교 계통의 종파는 이미 1775년부터 시작되었고 호북성에서 반란이 본격화하면서 사천성, 감숙성 등지까지 이어진 이 반란은 참가인원이 20여 만에 달했다.

백련교는 ‘無生父母 眞空家鄉’이라는 8자의 진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륵신앙에서 도입된 말세관인 ‘三陽說’을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었다.⁵⁸⁾ 8자 진언은 현세의 종말인 말겁이 가까워서 인간은 구제 받아 새로운 이상세계를 맞이한다는 미래상을 나타낸다. 무생부모의 세계는 바로 미륵불이 주재하는 세계이고 이 세계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고향이며 현세는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다. 이 8자 진언의 무생부모의 의미는 구체적으로는

57) 고성훈, 1993 앞의 논문.

58) 熊德基, 1964 「中國農民戰爭與宗教及其相關問題」 『歷史論叢』 1,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혈육생신의 부모를 가부모로 본다. 천상에 따로 무생의 진부모, 무생의 노조가 있다”는 것이다.⁵⁹⁾ 백련교도의 주무대가 섬서성 진령 남쪽, 사천성 동북부, 호북성 서부 산악, 그리고 감숙성의 동남부와 하남성의 서남부 산악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원래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었는데 청대 초기부터 이주자가 많이 몰려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었다. 이주민의 사회적 성격은 대체로 貧民, 窮民, 無業의 匪徒 등 기층 유민들이었다.⁶⁰⁾ 이주민 사회의 사회구성이 종족적 결합이나 지연적 동질성이 희박한 조건에 비추어 현세적 전통적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가상으로 보는 이 교리는 손쉽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체적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한 당시 중국 사회의 사회 정치 체제에 대해 언제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생부모의 신앙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은 미륵하생신앙이었다. 물론 미륵신앙은 자주 중국 민중운동의 종교적 외피로 작용해 왔다. 그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를 갖춘 것은 바로 백련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륵불이 출현하고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적 재앙인 劫災를 거쳐야 한다. 이는 ‘삼양설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삼양설에 의하면 우주의 開天 이래의 과정은 미래까지 포함해 3기로 구분되어 각각 靑陽, 紅陽, 白陽으로 불리고 각 시기의 주재자는 燃燈佛, 석가불, 미륵불로 설정된다. 이 구도에 따르면 미륵불이 주재하는 백양기가 가까이 도래하는 징후가 보이면 그 기대와 함께 재앙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⁶¹⁾

실제로 교도들의 입교 동기도 이상향으로의 진입이나 구제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겁재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민간에

59) 『雙柱堂稿續編』 권8.

60) 崔甲洵, 1989 『明清代의 農民反亂』 『강좌 중국사』 IV.

61) 위의 글 참조.

는 이미 미륵 신앙의 겁재관이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겁재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질서와 체제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때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바탕이 마련된다.

명대의 농민반란과 청대의 농민반란의 큰 차이점은 청대의 경우 종교적 외피를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륵 신앙이나 정감록을 내세운 저항의 형태가 많았던 조선의 경우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부 종교적 외피를 쓴 농민의 저항이 출현하지만, 미륵신앙과 정감록 같은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다. 민중운동의 경우에 중국과 한국이 유사한 측면을 보이며 체제부정으로까지 발전하지만 일본의 농민반란이 대부분 현실의 체제에 포섭되고 마는 것은 그 같은 이유에서이다.

2. 外侵에 대한 위기의식

조선 사회에서 양란 이후의 외침에 대한 두려움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했다. 17-18세기의 讒言 사건은 바로 이 같은 민중의 정서를 이용한 것이었다.

1674년(숙종 즉위년 9월)에는 胡와 倭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서울 안팎이 크게 동요한 사건이 발생했고⁶²⁾ 1676년에는 정금이 중원에서 사변을 일으키려 한다는 와언이 담긴 倭書가 발견되어 영의정 허적 이 왕에게 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⁶³⁾ 와언이 퍼져서 일반 민인만이 아니라 사대부까지 피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숙종이 직접 이의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⁶⁴⁾

62)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9월 을축.

63) 『숙종실록』 권5, 숙종 2년 2월 정묘.

이 같은 외침을 빙자한 와언 사건은 영정조대에도 발생했다. 1760년(영조 36년) 거지룡이라는 자와 승려 청운 등이 “골각도라는 곳에서 尹嶼, 金壕, 趙潭 등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 일본과 내통했다”는 말을 유포했는데 이 말을 愼後一, 愼後彭 형제가 듣고 掛書로 고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와언과 패서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임란 이후의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1787년(정조 11년) 4월에는 경기도와 호서지방에 갑자기 와언이 횡행해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 와언의 내용은 주로 “북방족의 기병이 들이닥칠 것이다. 혹은 해적의 배가 가까운데 정박하고 있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 와언 때문에 백성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달아나는 통에 마을이 빌 지경이었다고 한다.⁶⁵⁾ 경기도 과천에서는 “북방의 기병이 갑자기 義田村 앞벌로 들이 닥쳤다”는 내용의 와언이 유포되어 백성들이 달아난 사태가 발생했다.⁶⁶⁾ 이보다 2달 뒤에는 충청도 진천의 金東翼, 金東喆 등이 주동이 되어 ‘海島 거사모의’가 있었다.⁶⁷⁾ 이 해도거사모의는 『정감록』에 나오는 眞人의 海島출현설을 이용한 것이었지만, 그 자체가 외세에 대한 민중의 위기의식을 이용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司直 姜游는 “남양에 성을 쌓고 江倉의 곡식을 성안으로 실어들이며 성 가까이에 있는 45개의 고을에는 동쪽에 독을 쌓고 곡식을 저장하기 바랍니다”라는 소를 올렸고 정조도 이 가운데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도록 했다.⁶⁸⁾

그 밖에도 와언 사건은 조정을 비방하거나 역모로 군사가 동원되었다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일회적 사건이었지만 체제를 비판하고 체제 도전적

64) 『숙종실록』 권24, 숙종 18년 1월 을축.

65) 『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4월 병진.

66) 『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4월 정사.

67) 『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6월 경술.

68) 『정조실록』 권24, 정조 11년 8월 계해.

사례도 있었다.

1748년 청주와 문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생한 궤서사건에는 ‘反倭의 출현으로 弓弓處로 피신해야 한다는 『도선비기』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남방의 봉화가 제대로 울려지지 않고 북쪽 변방의 성책을 물렸으니, 오래지 않아 난이 일어날 것이다”라거나⁶⁹⁾ “사람들의 말에 흥흥한 것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왜인이 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은 왜인이 아니고 거짓으로 왜인 차림을 하여서 오는데 이들은 무신년 餘黨으로 海島에 있던 자들이다”⁷⁰⁾ 등 외침을 배경으로 무신난의 여파를 이용한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⁷¹⁾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던 이지서는 공초에서 『정감록』에 나오는 鄭姓眞人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금산 鳳溪에 사는 鄭哥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침에 땅에 떨어져 태어나서 저녁에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장대해서 삼척동자가 죄어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⁷²⁾

궤서와 변란의 형태로 나타난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권력에서 소외된 寒儒가 일으킨 것이지만, 민중의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에 『도선비기』의 난리시 도피처가 이용되고, 『정감록』의 메시아적 사상, 그리고 정치적 변란이었던 무신난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일으킴으로써 민중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1851년에서 1873년간 20여 년에 걸친 세 차례나 모의된 海西, 嶺南人의 변란도 변란의 모의과정에서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 이들은 南朝鮮이 장차 우리나라를 침공할 것이니 ‘利在弓弓’하다는 말을 퍼뜨려 민심을 동요시키는 한편 거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다.⁷³⁾ 이 시기는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고

69)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5월 병오.
70)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5월 병오.
71)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5월 병오.
72)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5월 무신.

조선에서도 洋擾가 있어 현실적으로 외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연한 문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은 일상적이었다. 명이 멸망한 이후 만주족의 청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중국 민중의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민중운동에는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이 내재하고 있었다.

외세에 대한 거부감은 청의 정책과 관련하여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만주족에 대한 '반청' 의식은 청대 내내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청 북명'을 내세운 민중운동이 나오는 것은 19세기 들어서였고 그 대표적 조직이 천지회이다.

천지회는 白蓮教 및 哥老會 등과 더불어 淸代의 이름난 비밀결사이고, 더구나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각종의 반란과 혁명에 관여하고 있었다. 물론 천지회의 기원에 관해서는 그 이전 시기로까지 소급하기도 하나 구체적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였다.⁷⁴⁾ 천지회의 활동지역은 교통로선상의 도시나 교역이 활발한 시장이었다.⁷⁵⁾ 그래서 결사 조직이나 회원간의 평등성, 민주성, 미약한 종교성, 그리고 성시 경제 발달과의 관계 등을 들어 그들의 출현을 평민 역량의 성장이자 근대성의 한 상징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⁷⁶⁾

천지회는 결사 본질, 즉 결배에 의한 異性인 동지의 의제적인 혈연관계를 조직의 유대로 하고, 본래는 회원 상호부조 협력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자위 또는 적극적인 이익확대를 위해서는 반권력, 반체제적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전투적인 집단이었다.⁷⁷⁾ 천지회를 천지회답게 만든 것은

73) 배향섭, 2002 앞의 책, 63-67쪽.

74) 유장근, 1990 「천지회의 기원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경대사론』 제4·5합집.

75) 王爾敏, 1981 「秘密宗教與秘密社會之生態環境及社會功能」,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集刊』 第10期.

76) 秦寶琦·劉美珍, 1980 「試論天地會」, 『清史研究集』 제1집.

이른바 '반청복명'의 구호다. 이 결사를 다른 결사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도 반청복명에 있다. 그러나 반청복명의 구호는 그것이 가지는 이념적인 측면보다 회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유효성, 즉 그 구호를 사용하다 발각되는 것은 회원의 신변에 직접 피해가 가므로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결합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⁷⁷⁾ 천지회의 이름으로 일어난 최초의 반란이었던 林爽文의 거병 이유도 탐관의 주살과 백성의 편안함에 있었던 것으로, 반청의식은 있었지만 복명이라고 하는 의식은 없었다고 한다. 천지회에 관한 연구가 연구자간에 차이가 있지만 반청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 내부의 모순이 체제를 장악한 만주족에 대한 저항의식, 곧 반외세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반외세의식은 아편전쟁 이후 반청에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전화되면서 민족의식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데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은 양란이후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이 길게 드리워진 채 민중운동에서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역시 천지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외세의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같은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과 반외세 의식은 제국주의 침략기에 반침략운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개항을 전후해 반외세의식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도쿠가와 시기 내내 반외세의식이 나타날 수 없었던 역사적 조건과 제국주의로 전화하면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민중운동의 의식세계에도 중국 한국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77) 佐佐木正哉, 1969 「天地會成立の背景」, 『明治大學人文科學研究所紀要』 7.

78) 佐佐木正哉, 1963 「咸豐四年廣東天地會の叛亂」, 『近代中國研究センタ彙報』 2.

맺음말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조선후기 사회는 지배체제가 근원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지배층은 調劑保畝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체제 유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제의 근원적 개혁이 없는데다가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지배층의 수탈 강화는 민중의 저항을 불러왔다. 그 저항은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합법적 정소에서부터 토지를 떠나는 유망, 화전, 도적 활동, 그리고 봉건모순에 직접 저항해 일어나는 봉기의 형태 등 다양했다. 합법적 형태의 정소는 일반적으로 토지에 기반한 농민들이 토지점병이나 부세중압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후기로 갈수록 집단적 반발로 발전하면서 19세기에 들어서면 민란의 형태로까지 발전해 나갔다.

토지를 떠나 유민이 된 경우는 산 속에서 화전을 일구며 부세중압에서 벗어나려는 경우도 있었고, 유개로 떠돌다가 도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유개나 도적의 출현은 전국적 현상이어서 봉건정부의 고식적 대책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유민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상업발달에 힘입어 임노동자로 전화하기도 하고 광산의 발달에 따라 광산노동자로 수용되기도 했고, 향촌의 경우 장시를 중심으로 임노동자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임노동은 고용이 일상적으로 불안정해서 도적집단과 결합되는 형태도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적 변화와 불안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민중의 정서를 동요시켰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외연과 요언이다.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을 나타내거나 조정비방, 역모로 인한 군사동원 등 체제 비판적 외연에 비해서 妖言은 상대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요언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지만 미륵신앙이나 정감록을 이용한 경우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조선후기 변란주모자들이 미륵신앙과 『정감록』을 민중의 동원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민중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의식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현실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나아가 이상세계로의 지향, 곧 체제부정의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편전쟁 이전 중국사회에서 청대에 가장 큰 민중운동이었던 백련교도의 난 역시 종교적 외피 속에 체제부정의 의식으로까지 발전해 갔다. 무생부모, 미륵불 신앙을 기반으로 한 백련교는 당시 민간에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있던 미륵 신앙의 겹재관을 이용하였다. 겹재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질서와 체제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때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바탕이 마련된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일부 종교적 외피를 쓴 농민의 저항이 출현하지만, 미륵신앙과 정감록 같은 현실세계에 대한 부정,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다. 민중운동의 경우에 중국과 한국이 유사한 측면을 보이며 체제부정으로까지 발전하지만 일본의 농민반란이 대부분 현실의 체제에 포섭되고 미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삼국간 민중의식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

조선 사회에서 양란 이후의 외침에 대한 두려움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했다. 17-18세기의 讖言 사건은 바로 이 같은 민중의 정서를 이용한 것이었다. 실제로 각종 변란에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은 천지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족의 만주족에 대한 거부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천지회의 '반청복명'은 바로 그 표현이다. 물론 양란의 후유증이 남긴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으로서의 한국과 체제를 지배하는 만주족에 대한 중국의 저항의식은 역사적 조건이 다르다. 그러나 개항이후 외세의 침입 속에 격렬한 반외세운동을 벌이는 중국과 한국의 민중운동의 저변에는 반외세 의식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반외세 의식이 개항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표현되는 일본과 다르다. 동아시아 사회가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로 간 일본의 민중의식에 반침략의식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이었고, 20세기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도 한국 중국과 일본의 민중의식이 차이가 나는 것도 멀게는 세계체제 편입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변란, 민중, 조선후기, 종교적 외파, 외침, 미륵신앙, 정감록



The Study of the Minjung's Upheaval and Consciousness at the Late Chosun Dynasty

Ha, Won-Ho

At the late Chosun dynasty, Korean people had been disturbed by the social changes and uncertainty. Both Whayon(訛言) and Yoyon(妖言) were representing these situations. The Whayon was indicative of the critic on the Establishment such as the activities of anti-government, a treasonable conspiracy. On the other hand, the Yoyon relatively showed the tone of the religion.

Using the Budhisattva's belief(彌勒信仰) and Chonggamlok(輿鑑錄), the Yoyon had developed Minjung(民衆)'s religious belief into the activities of the anti-Establishment. The leaders of Minjung's upheaval usually put these religious believes of people's mobilization. The people's fervent hope of the Utopia closely connected with their consciousness of anti-government. The Bækryunkyo(白蓮教)' rebellion in Ch'ing China was an example. They applied religious relief, like the Kupjaekwan(劫災觀) of Bodhisattva's belief, to the weapon of anti-government's thoughts. The Kupjae(劫災) based on the thoughts of people's anti-establishment and actively led them to the uprising.

Unlike both China and Korea, the Japanese people did not based on the thoughts of the Bhudhisattva's belief and Chonggamlok. Even though they used the religious thoughts for the uprising, these activities did not developed into the anti-establishment's activities. The Japanese peasant's uprisings was unsuccessful and ultimately admitted the government's authority.

The Korean people had been anxious about the fear of the external plunders since the late 16th and early 17th century's national crisis. During the 17 to 18 century, the incidents emphasized peoples' mentality such as the crisis of the external aggression. In case of China, Chonjinheo(天地會) made the anti-Manchurian of the Han race. Although both Korea and China's historical experiences was different, two peoples severely went through anti-imperial activities and their uprisings based on the anti-imperial consciousness.

These experiences were not similar to the Japanese. After the Opening Ports of China in 1840, Japan in 1854, Korea in 1876, these three countries included into the World system. However, the opening ports resulted in different situations, such as the imperialism in Japan, the semi-colony in China, and the Japanese colony in Korea, respectively. These situation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people's different consciousness of the "Western impact" or "Western aggression" among these three countries. Therefore, we argued that the peoples' different responses of the external impact in China, Korea, and Japan had been connected with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since 17 to 18 centuries.

Key Words : upheaval, Minjung, Budhisattva's belief, the fear of the external plunders

K C I